『註解傷寒論·辨太陽病脈證幷治法上第五』에 對한 硏究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김진호·방정균*

對於『註解傷寒論·辨太陽病脈證幷治法上第五』的硏究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金振鎬 · 方正均

『註解傷寒論』是成無己著述的書籍, 這是關于『傷寒論』最初注釋的書. 『註解傷寒論』劉至大影響于後代醫家, 但也有提起關于圖式的解釋之批判. 『註解傷寒論』是主敍述關于太陽病概念和桂枝湯證. 特別關于中風和傷寒的內容是說明太陽病的概念, 後代醫家跟從此說. 也成無己說明對于桂枝湯證的病機, 是以風傷衛的概念來說明的.

Key Words : 註解傷寒論, 成無己, 中風, 傷寒

Ⅰ. 序 論

『傷寒雜病論』(以下『傷寒論』으로 약칭)은 漢醫學 최고의 임상서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저술 시기와 저자에 대한 논의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판본에 따라서 원문의 위치 및 내용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 결과물이 발표되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이 내려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東漢末의 張仲景에 이해 저술되었고, 王淑和에 의해 새롭게 정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註解傷寒論』은 바로 王淑和에 의해 정리된 『傷寒論』 全篇을 주석한 것으로, 『傷寒論』 전문에 대한 최초의 주석서이다. 成無己에 의해 완성된 이 서적은 해석 방법 및 판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비판을 받고 있지만, 후대의 『傷寒論』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논자는 『註解傷寒論』의 일부를 번역하고, 그 속에 담긴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 교신저자 : 방정균,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033) 730-0666, bjkdcw@sangji.ac.kr

Ⅱ. 硏究方法

一. 번역에 사용된 原本은 김용옥이 解題를 달고 한국의 통나무 출판사에서 출판된 『註解傷寒論十卷』즉, 汪濟川이 校正한 『四部叢刊』本이다.

二. 原本에는 구두점이 없어 北京의 人民衛生出版社에서 출판된 『注解傷寒論』을 참조하여 구두점을 달았으되 명확히 잘못된 구두점은 별다른 언급 없이 수정하였으며, 註解에 인용된 인용문은 큰따옴표로 처리 하였다.

三. 南京의 江蘇科學技術出版社에서 출판된 四庫全書傷寒類醫著集成-上의 『傷寒論注釋』을 主 校勘本으로 삼아 교감을 달고 '『四庫全書』本'으로 표시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몇몇 다른 책들을 참조하였다.

四. 『傷寒論』에 나온 중량과 용량의 상호관계는, 6銖는 1分이 되고 24銖는 4分으로 1兩이 되며 16兩은

1斤이 되고 10合은 1升이 되며 10升은 1斗가 된다. 이를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함에 있어 책마다 다소의 차이가 보이는데, 『傷寒論辭典』을 근거로 하자면, 중량의 경우 銖는 0.125g, 分은 0.75g, 斤은 48g, 升은 18-30g이 되고 斗가 중량으로 사용된 경우 180-300g이 된다. 용량의 경우 升은 60-100㎖ 斗는 600-1000㎖가 된다[1].

Ⅲ. 本 論

【原文 1】

太陽之爲病, 脈浮, 頭項强痛而惡寒.

【解釋】

太陽의 病이라는 것은 脈이 浮하고 머리와 뒷 목이 뻣뻣하고 아프면서 惡寒하는 것입니다.

【註解】

經曰 "尺寸俱浮者, 太陽受病." 太陽受病①, 太陽主表, 爲諸陽主氣. 脈浮, 頭項强痛而惡寒者, 太陽表病也.

【校勘】

① 太陽受病 : 『傷寒論板本大全』에는 이 문구가 빠져있다[2]. 이미 바로 앞에 같은 문구가 존재하고 '太陽受病'과 뒤의 문장과의 내용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점으로 미루어, 생각건대 중복된 傳寫인성 싶다. 굳이 이 문구를 살리자면 '脈浮'의 앞에 위치하거나, '太陽主表, 爲諸陽主氣.'가 문장 중간에 첨가된 것으로 봐야할 것 같다. 여기서는 중복된 傳寫로 보아 해석하지 아니하였다.

【解釋】

經에 이르길 "尺과 寸이 모두 浮한 것은 太陽이 病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太陽은 表를 主하고 諸陽을 위하여 氣를 主합니다. 脈이 浮하고 머리와 뒷 목이 뻣뻣하고 아프면서 惡寒하는 것은 太陽表病입니다.

【原文 2】

太陽病, 發熱, 汗出, 惡風, 脈緩者, 名爲中風.

【解釋】

太陽病에 發熱하고 汗出하며 惡風하고 脈이 緩한 것을 中風이라 이릅니다.

【註解】

風, 陽也. 寒, 陰也. 風則傷衛, 發熱, 汗出, 惡風者, 衛中風. 榮病, 發熱, 無汗, 不惡風而惡寒 ; 衛病, 則發熱, 汗出, 不惡寒而惡風. 以衛爲陽, 衛外者也, 病則不能衛固其外, 而皮腠疏, 故汗出而惡風也. 傷寒脈緊, 傷風脈緩者, 寒性勁急而風性解緩故也.

【解釋】

風은 陽입니다. 寒은 陰입니다. 風은 곧 衛를 傷하는데 發熱하고 汗出하며 惡風하는 것은 衛가 風邪에 적중된 것입니다. 榮病은 發熱하고 無汗하며 惡風하지 않고 惡寒하며, 衛病은 發熱하고 汗出하며 惡寒하지 않고 惡風합니다. 衛는 陽이 되어 外部를 護衛하는 것인데, 病들면 그 밖을 護衛하고 堅固하게 할 수 없어 피부와 주리가 성글데 되면 汗出하면서 惡風합니다. 傷寒은 脈이 緊하고 傷風은 脈이 緩한 것은 寒性은 勁急하고 風性은 解緩하기 때문입니다.

【原文 3】

太陽病, 或已發熱, 或未發熱, 必惡寒, 體痛, 嘔逆, 脈陰陽俱緊者, 名曰傷寒.

【解釋】

太陽病에 혹은 이미 發熱하였거나 혹은 아직 發熱하지 않았거나 반드시 惡寒하고 體痛하며 嘔逆하고 陰脈과 陽脈이 모두 緊한 것을 일러 말하길 傷寒이라 합니다.

【註解】

經曰 "凡傷於寒, 則爲病熱." 爲寒氣客於經中, 陽經怫結而成熱也. 中風卽發熱者, 風爲陽也. 及傷寒云, 或已發熱, 或未發熱, 以寒爲陰邪, 不能卽熱, 鬱而方變熱也. 風則傷衛, 寒則傷榮, 衛虛者惡風, 榮虛者惡寒, 榮傷寒者, 必惡寒也. 氣病者則痲, 血病者則痛. 風令氣緩, 寒令氣逆, 體痛嘔逆者, 榮中寒也. 經曰 "脈盛身寒, 得之傷寒." 脈陰陽俱緊者, 知其傷寒也.

1) 劉渡舟 主編. 傷寒論辭典. 서울. 醫聖堂. 2004.
2) 李順保 編著. 傷寒論板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601.

【解釋】

經에 이르길 "무릇 寒에 傷하면 熱病이 됩니다."라고 하니, 寒氣가 經中에 머무르게 되면 陽經이 怫結되어 熱을 이룹니다. 中風에 바로 發熱하는 것은 風이 陽이 되기 때문입니다. 傷寒에 이르러 '혹은 이미 發熱하였거나 혹은 아직 發熱하지 않았거나'라고 말하는 것은, 寒은 陰邪여서 바로 發熱할 수 없고 鬱하여야 바야흐로 熱로 變하기 때문입니다. 風은 衛를 傷하고 寒은 榮을 傷하며, 衛가 虛한 경우 惡風하고 榮이 虛한 경우 惡寒하며, 榮이 寒에 傷한 경우 반드시 惡寒합니다. 氣가 病든 경우 痲하고 血이 病든 경우 痛합니다. 風은 氣를 緩하게 하고 寒은 氣를 逆하게 하니, 體痛하고 嘔逆한다는 것은 榮이 寒邪에 적중된 것입니다. 經에 이르길 "脈이 盛하고 몸이 寒한 것은 傷寒을 얻은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陰脈과 陽脈이 모두 緊하다는 것으로 그 寒에 傷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考察】 成無已는 中風과 傷寒에 대해 風邪는 陽에 屬하고 寒邪는 陰에 屬한다는 陰陽의 屬性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결과 病機에 대해서 風傷衛(中風), 寒傷營(傷寒)으로 설명하면서 이에 근거하여 각각의 증상들을 설명하고 있다. 후대의 대부분의 醫家들은 中風과 傷寒에 대한 成無已의 설명을 따르고 있고, 특히 "三綱鼎立說"을 주장하는 의가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成無已의 주장은 中風과 傷寒을 너무 도식적으로 구분한 측면이 있다. 그 결과 후대에는 이와는 다른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니, 森立之는 體質的인 요소를 언급하여 평소에 虛한 사람이 邪氣를 感受하면 中風이 되고, 實한 사람이 邪氣를 感受하면 傷寒이 된다고 설명하였다[3]. 한편, 李培生은 체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邪氣의 輕重 문제를 첨부하여 中風과 傷寒證을 감별하였다. 즉, 表虛한 사람이 邪氣를 感受하면 中風證이 발생하고, 體質이 壯實한 사람이 비교적 甚한 邪氣를 感受하면 傷寒證이 발생한다고 보았다[4]. 이상의 森立之와 李培生의 주장을 근거로 논의를 확대해 보면 邪氣의 輕重과 體質의 强弱을 조합하여 外感病의 발생 有無 및 病의 양태를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陽氣가 充滿한 强한 體質의 사람이 비교적 輕한 邪氣를 感受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고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둘째, 强한 體質의 사람이 重한 邪氣를 感受한 경우이다. 이때는 邪氣가 陽氣의 저항에 의해 가장 表部인 皮毛에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경우는 麻黃湯으로 解表發汗 시켜야 하는 傷寒에 해당된다. 셋째, 陽氣가 不足하여 평소 체질이 虛弱한 사람이 輕한 邪氣를 감수한 경우이다. 이때는 體表의 陽氣가 虛하기 때문에 邪氣가 皮膚보다 深部인 肌肉에 까지 침입해 들어간다. 이 경우는 桂枝湯으로 解肌시켜야 하는 中風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평소 체질이 虛弱한 사람이 重한 邪氣를 감수한 경우이다. 이때는 邪氣가 裏部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大靑龍湯證이나 三陰直中證에 해당이 된다[5].

【原文 4】

傷寒一日, 太陽受之, 脈若靜者爲不傳 ; 頗欲吐, 若煩燥, 脈數急者, 爲傳也.

【解釋】

傷寒 1日에 太陽이 받는데, 脈이 만약 靜하면 傳하지 않는 것이고, 吐하려 하고 煩燥하며 脈이 數急한 것과 같은 경우는 傳하는 것입니다.

【註解】

太陽主表, 一日則太陽受邪, 至二日當傳陽明, 若脈氣微而不傳陽明, 胃經受邪, 則喜吐 ; 寒邪傳裏者, 則變熱, 如頗欲吐, 若煩燥, 脈急數者, 爲太陽寒邪變熱, 傳於陽明也.

【解釋】

太陽은 表를 主하니 1日에 太陽이 邪氣를 받고 2

3) 森立之 著. 傷寒論考注(上冊). 北京. 學苑出版社. 2003. p.189.
"中風一證, 其人素衛氣疎泄不堅, 或有勞動奔走等之事, 擾動陽氣, 令表開泄, 乘其虛隙也. 邪氣適來侵, 則爲中風表虛證也. 蓋邪氣無正形, 爲中風之邪與傷寒之邪, 固是無二, 只表虛人受邪者爲中風, 表實人受之則爲傷寒耳."

4) 李培生 主編. 傷寒論.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pp.11-13.

5) 방정균. 『傷寒論』의 "中風"과 "傷寒"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4). pp.142-143.

日에 이르러 마땅히 陽明으로 傳하는데, 만약 脈氣가 미약하여 陽明으로 傳하지 않으면 胃經이 邪氣를 받아 잘 吐하게 된다. 寒邪가 裏로 傳하면 熱로 變하니, 吐하려 하고 煩燥하며 脈이 急數한 것과 같은 경우는 太陽의 寒邪가 熱로 變하여 陽明에 傳해진 것입니다.

【考察】 成無已는 太陽病이 陽明으로 傳하는 것과 陽明으로 傳하지 않고 胃經이 邪氣를 받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즉, 脈氣가 微弱하면서 자주 吐하는 것은 胃經이 邪氣를 받은 것으로 보았고, 吐하려고만 하고 실제로 吐하지는 않으면서 煩燥한 증상이 나타나고 脈이 急數한 경우는 陽明으로 傳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본 조문의 傳變에 대해서는 陽明으로 傳해진 것이라는 주장 이외에, 陽明과 少陽으로 傳해진 것이라는 주장과 少陰으로 傳해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6].

【原文 5】

傷寒二三日, 陽明少陽證不見者, 爲不傳也.

【解釋】

傷寒 2-3日에 陽明證과 少陽證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傳하지 않은 것입니다.

【註解】

傷寒二三日, 無陽明少陽證, 知邪不傳, 止在太陽經中也.

【解釋】

傷寒 2-3日에 陽明證과 少陽證이 없으니, 邪氣가 傳해지지 않고 다만 太陽經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原文 6】

太陽病, 發熱而渴, 不惡寒者, 爲溫病.

【解釋】

太陽病에 發熱하며 목이 마르고 惡寒하지 않는 것은 溫病입니다.

【註解】

發熱而渴, 不惡寒者, 陽明也. 此太陽受邪, 知爲溫病, 非傷寒也. 積溫成熱, 所以發熱而渴, 不惡寒也.

【解釋】

發熱하며 목이 마르고 惡寒하지 않는 것은 陽明病입니다. 여기서는 太陽이 邪氣를 받은 것이니, 溫病이 되고 傷寒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溫이 쌓여 熱을 이루었기 때문에 發熱하며 목이 마르고 惡寒하지 않는 것입니다.

【考察】 發熱하면서 목이 마르고 惡寒하지 않는 증상은 陽明病과 溫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에 대해 成無已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본 조문의 경우 "太陽이 邪氣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傷寒이 아니고 溫病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傷寒의 경우 太陽에서 陽明으로 傳變이 되어야 以上의 증상이 나타나므로 傳變되는데 까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본 증상이 발생한다. 이에 비해 溫病은 발병 초기부터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積溫成熱"에 의해 發熱과 갈증 및 不惡寒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아, 溫病을 발생시키는 邪氣를 溫邪로 보고 있다.

【原文 7】

若發汗已, 身灼熱者, 名曰風溫. 風溫爲病, 脈陰陽俱浮, 自汗出, 身重, 多眠睡, 鼻息必鼾, 語言難出. 若被下者, 小便不利, 直視, 失溲 ; 若被火者, 微發黃色, 劇則如驚癎, 時瘛瘲 ; 若火熏之, 一逆尙引日, 再逆促命期.

【解釋】

만약 이미 發汗하였는데 몸이 灼熱하는 것을 일러 말하길 風溫이라 합니다. 風溫의 病은 陰脈과 陽脈이 모두 浮하고 自汗이 나며 몸이 무겁고 잠이 많으며 숨 쉴 때 반드시 코를 골고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下하는 치료를 받으면 小便不利하고 直視하며 소변을 지리고, 만약 火의 치료를 받으면 경미한 경우는 몸에 黃色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는 驚癎처럼 때로 瘛瘲하며, 만약 火로 훈증하면 한번 逆治에 오히려 날짜만 연장할 뿐이고, 두 번 逆治하면 목숨의 기간을 재촉합니다.

【註解】

傷寒發汗已, 則身涼 ; 若發汗已, 身灼熱者, 非傷寒, 爲風溫也. 風傷於上, 而陽受風氣, 風與溫相合, 則傷衛. 脈陰陽俱浮, 自汗出者, 衛受邪也. 衛者氣也, 風

6) 李培生 主編. 傷寒論.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p.18.

則傷衛, 溫則傷氣, 身重, 多眠睡者, 衛受風溫而氣昏也. 鼻息必鼾, 語言難出者, 風溫外甚, 而氣擁不利也. 若被下者, 則傷臟氣, 太陽膀胱經也. 『內經』曰 "膀胱不利爲癃, 不約爲遺溺." 癃者, 小便不利也. 太陽之脈起目內眥; 『內經』曰 "瞳子高者, 太陽不足, 戴眼者, 太陽已絶." 小便不利, 直視, 失溲, 爲下後竭津液, 損臟氣, 風溫外勝. 經曰 "欲絶也爲難治." 若被火者, 則火助風溫成熱, 微者熱瘀而發黃; 劇者熱甚生風, 如驚癎而時瘛瘲也. 先曾被火爲一逆, 若更以火熏之, 是再逆也. 一逆尙猶延引時日而不愈, 其再逆者, 必致危殆, 故云促命期.

【解釋】

傷寒에 發汗을 마쳤으면 身涼해야 하는데, 만약 發汗을 마쳤는데 몸이 灼熱하는 것은 傷寒이 아니고 風溫이 됩니다. 風이 上을 傷하여 陽이 風氣를 받아 風이 溫과 더불어 相合하면 衛를 傷합니다. 陰脈과 陽脈이 모두 浮하고 自汗이 난다는 것은 衛가 邪를 받은 것입니다. 衛는 氣인데 風은 衛를 傷하고 溫은 氣를 傷하니, 몸이 무겁고 잠이 많은 것은 衛가 風溫을 받아 氣가 어지러워진 것입니다. 숨 쉴 때 반드시 코를 골고 언어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風溫이 밖에서 甚하여 氣가 막혀 소통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下하는 치료를 받으면 臟氣를 傷하니, 太陽膀胱經입니다. 『內經』에 이르길 "膀胱은 不利하면 癃이 되고 不約하면 遺溺가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癃은 小便不利입니다. 太陽의 脈은 目內眥에서 일어나고, 『內經』에 이르길 "瞳子가 高한 것은 太陽이 不足한 것이고, 戴眼은 太陽이 이미 끊어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小便不利·直視·失溲는 下시킨 뒤에 津液이 고갈되고 臟氣가 손상되어 風溫이 밖에서 勝한 것입니다. 經에 이르길 "끊어지려 하는 것은 치료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火의 치료를 받으면 火가 風溫을 도와 熱을 이루니, 경미하면 熱瘀로 인해 몸에 黃色이 나타나고, 심하면 熱이 甚하여 風을 일으켜 驚癎처럼 때로 瘛瘲합니다. 먼저 火의 치료를 받는 것이 一逆이 되는데, 만약 다시 火로 훈증하면 이는 再逆입니다. 한번 逆治하면 오히려 時日을 오래 끌어 낫지 않고, 두 번 逆治하면 반드시 위태한데 이르니, 때문에 목숨의 기간을 재촉한다고 말합니다.

【考察】 風溫病에 나타나는 "脈陰陽俱浮, 自汗出"의 증상에 대해서는 衛가 邪氣, 즉 風溫邪의 침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몸이 무거운 증상에 대해서는 風邪가 衛를 傷해서 발생하고, 잠이 많은 증상은 溫이 氣를 傷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鼻息必鼾, 語言難出"에 대해서는 風溫이 밖에서 甚하여 氣가 막혀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原文 8】

病有發熱惡寒者, 發於陽也; 無熱惡寒者, 發於陰也. 發於陽者七日愈, 發於陰者六日愈. 以陽數七, 陰數六故也.

【解釋】

病에 發熱하며 惡寒이 있는 것은 陽에서 發한 것이고, 熱은 없고 惡寒이 있는 것은 陰에서 發한 것입니다. 陽에서 發한 것은 7日에 낫고, 陰에서 發한 것은 6日에 낫습니다. 陽數는 七이오 陰數는 六이기 때문입니다.

【註解】

陽爲熱也, 陰爲寒也. 發熱而惡寒, 寒傷陽也; 無熱而惡寒, 寒傷陰也. 陽法火, 陰法水. 火成數七, 水成數六. 陽病七日愈者, 火數足也; 陰病六日愈者, 水數足也.

【解釋】

陽은 熱이 되고 陰은 寒이 됩니다. 發熱하며 惡寒하는 것은 寒이 陽을 傷한 것이고, 熱은 없고 惡寒하는 것은 寒이 陰을 傷한 것입니다. 陽은 火를 본받고 陰은 水를 본받습니다. 火의 成數는 七이고 水의 成數는 六입니다. 陽病이 7日에 낫는다는 것은 火數가 충족되어서 이고, 陰病이 6日에 낫는다는 것은 水數가 충족되어서 입니다.

【考察】 成無己는 陽은 熱이 되고 陰은 寒이 된다는 기본 인식 아래, "發於陽"을 寒邪가 陽을 손상시킨 것이므로 "發熱惡寒"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에 반해 "發於陰"은 寒邪가 陰을 손상시킨 것이므로 "無熱惡寒"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다만 陰陽에 대해서는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기

않고 있다. 한편, 치유되는 날짜에 대해서는 7이 火의 成數이고 6이 水의 成數이기 때문에 "7-陽, 6-陰"으로 귀납시킬 수 있음을 짧게 언급하고 있다.

본 조문과 관련된 역대 주석가들의 해석은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음양의 문제와 치유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논자의 견해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병부위에 있어서 "發於陽"의 경우는 인체의 衛氣가 盛한 상태에서 맹렬한 외부 邪氣의 침습을 받아 병의 정도가 重한 상태를 표현한 것이고, "發於陰"의 경우는 인체의 衛氣가 虛한 상태에서 맹렬한 賊風邪氣가 아닌 겨울의 정상적인 寒氣를 感受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병의 정도가 輕한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陰"의 의미는 인체 내부의 문제 즉, 衛氣가 虛한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發熱의 有無에 있어서는 "發於陰, 醫反下之, 因作痞"의 조문에 근거하여 의사가 下法을 사용해야 된다고 誤認할 만한 증상을 환자가 갖추고 있었을 것이고, 그 대표적인 증상은 發熱이었을 것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치유되는 시기에 있어서 명확하게 7日이냐 6日이냐 하는 것은 치유되는 시기의 개괄적인 것을 논한 것이므로 그 날짜에 구애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發於陽"의 경우는 衛氣가 實한 상태에서 맹렬한 邪氣의 침습을 받아 병이 발생한 것으로 그 정도가 重한 상황이다. 이에 비해 "發於陰"의 경우는 衛氣가 虛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겨울의 기운인 寒氣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그 정도가 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重한 상태인 "發於陽"의 경우 맹렬한 邪氣가 제거되어야 하고, 또한 邪氣에 대항하느라 소진되었던 衛氣가 회복되어야 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병이 치유되는 시기가 오래 걸리게 된다. 이에 비해 "發於陰"의 경우는 衛氣가 虛衰한 것이 주된 문제이므로 衛氣만 회복되면 정상적인 寒氣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병이 치유되는 시기가 짧은 것이다[7].

7) 방정균. "發於陽"과 "發於陰"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3). p.136.

【原文 9】

太陽病, 頭痛至七日已上自愈者, 以行其經盡故也. 若欲作再經者, 針足陽明, 使經不傳則愈.

【解釋】

太陽病의 頭痛이 7日 이상에 이르러 저절로 낫는 것은 그 經을 傳함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시 傳經하려고 하면 足陽明에 刺針하여 하여금 經에 傳하지 못하게 하면 낫습니다.

【註解】

傷寒自一日至六日, 傳三陽三陰經盡, 至七日當愈. 經曰 "七日太陽病衰, 頭痛少愈." 若七日不愈, 則太陽之邪再傳陽明, 針足陽明爲迎而奪之, 使經不傳則愈.

【解釋】

傷寒이 1日부터 6日에 이르도록 三陽經과 三陰經을 모두 傳하여 7日에 이르면 마땅히 낫습니다. 經에 이르길 "7日에 太陽病이 衰하여 頭痛이 조금 호전되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만약 7日에 낫지 않으면 太陽의 邪氣가 다시 陽明으로 傳할 것이니, 足陽明에 刺針하여 그것을 맞이하여 빼앗아 하여금 經에 傳하지 못하게 하면 낫습니다.

【考察】『素問·熱論』의 내용에 근거하여 太陽에서 厥陰까지 傳變되는 기일을 6일로 인식하여 7일째가 되면 病이 치유되는데, 7일이 되었는데도 病이 치유되지 않으면 再傳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原文 10】

太陽病欲解時, 從巳至未上.

【解釋】

太陽病이 풀리려 하는 시간은 巳時로부터 未時上에 이릅니다.

【註解】

巳爲正陽, 則陽氣得以復也. 始於太陽, 終於厥陰. 六經各以三時爲解, 而太陽從巳至未, 陽明從申至戌, 少陽從寅至辰; 至於太陰, 從亥至丑, 少陰從子至寅, 厥陰從丑至卯者, 以陽行也速, 陰行也緩, 陽主於晝①, 陰主於夜②. 陽三經解時, 從寅至戌, 以陽道常饒也; 陰三經解時, 從亥至卯, 以陰道常乏也. 『內經』曰 "陽中之太陽, 通於夏氣." 則巳午未太陽乘王也.

【校勘】

① 陽主於晝 : 『四庫全書』本에는 '陽生於晝'로 되어있다.

② 陰主於夜 : 『四庫全書』本에는 '陰生於夜'로 되어있다.

【解釋】

巳는 正陽이 되니, 陽氣가 회복됩니다. 太陽에서 시작하여 厥陰에서 끝납니다. 六經은 각각 三時辰으로 풀리니, 太陽은 巳時로부터 未時에 이르고 陽明은 申時로부터 戌時에 이르며 少陽은 寅時로부터 辰時에 이르고, 太陰에 이르러서는 亥時로부터 丑時에 이르고 少陰은 子時로부터 寅時에 이르며 厥陰은 丑時로부터 卯時에 이르는 것은 陽의 움직임이 빠르고 陰의 움직임이 느리며 陽은 낮을 主하고 陰은 밤을 主하기 때문입니다. 陽三經이 풀리는 시간은 寅時로부터 戌時에 이르니 陽道는 항상 넉넉하기 때문이고, 陰三經이 풀리는 시간은 亥時로부터 卯時에 이르니 陰道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內經』에 이르길 "陽中의 太陽은 夏氣에 通합니다."라고 하였으니, 즉 巳·午·未時에 太陽이 旺합니다.

【考察】三陽病이 풀리는 시각은 寅時에서 戌時까지이고, 三陰病이 풀리는 시각은 亥時에서 卯時까지인 이유에 대해 成無己는 陽道는 항상 넉넉하고 陰道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陽은 운행이 빠르고 陰은 운행이 느리며, 陽은 낮을 主하고 陰은 밤을 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太陽病이 巳時에서 未時 사이에 풀리는 이유에 대해 陽中의 太陽은 夏氣에 通한다는 『內經』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巳時에서 未時 사이에 太陽이 왕성해져 陽氣가 회복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본 조문에 대해 李培生은 임상적으로 2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적 가벼운 邪氣에 감촉된 환자의 경우 藥을 복용하지 않아도 자연계의 융성한 陽氣의 도움을 받아 病이 풀리는 것이다. 둘째, 환자가 藥을 복용했는데 邪氣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다가, 외부 陽氣의 도움을 받는 시기에 이르러 藥力이 발휘되어 邪氣가 除去되면서 病이 치유되는 것이다[8].

【原文 11】

風家, 表解而不了了者, 十二日愈.

【解釋】

風家에 表는 풀렸으나 상쾌하지 않은 것은 12日에 낫습니다.

【註解】

中風家, 發汗解後, 未全快暢者, 十二日大邪皆去, 六經悉和則愈.

【解釋】

中風家에 發汗하여 풀린 후 온전히 상쾌하고 화락하지 않은 것은, 12日에 大邪가 모두 제거되어 六經이 모두 조화로워지면 낫습니다.

【原文 12】

病人身大熱, 反欲得近衣者, 熱在皮膚, 寒在骨髓也 ; 身大寒, 反不欲近衣者, 寒在皮膚, 熱在骨髓也.

【解釋】

病人의 몸이 大熱한데 도리어 옷을 입고자 하는 것은 熱이 皮膚에 있고 寒이 骨髓에 있는 것이고, 몸이 大寒한데 도리어 옷을 입으려 하지 않는 것은 寒이 皮膚에 있고 熱이 骨髓에 있는 것입니다.

【註解】

皮膚言淺, 骨髓言深 ; 皮膚言外, 骨髓言內. 身熱欲得衣者, 表熱裏寒也 ; 身寒不欲衣者, 表寒裏熱也.

【解釋】

皮膚는 얕음을 말하고 骨髓는 깊음을 말하는 것이며, 皮膚는 밖을 말하고 骨髓는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에 熱이 나는데 옷을 입으려 하는 것은 表熱裏寒이고, 몸이 寒한데 옷을 입으려 하지 않는 것은 表寒裏熱입니다.

【考察】皮膚와 骨髓를 外內·淺深으로 구분하면서, 몸에 熱이 나는데도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은 表熱裏寒으로, 몸이 寒한데도 옷을 입으려 하지 않는 것은 表寒裏熱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李培生은 假熱과 假寒으로 본 조문의 病機

8) 李培生 主編. 傷寒論.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p.21.

를 설명하고 있다. 즉 몸에 熱이 나는데도 옷을 입으려하는 것은 陰寒內盛으로 虛陽이 외부로 浮越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熱이 나는 것은 假熱이고 옷을 입으려 하는 것은 眞寒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몸이 寒한데도 옷을 입으려 하지 않는 것은 裏熱이 過盛하여 鬱滯된 陽氣가 全身으로 布達되지 않아 나타나는 것으로, 몸이 寒한것은 假寒이고 옷을 입으려 하지 않는 것은 眞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9].

【原文 13】

太陽中風, 陽浮而陰弱. 陽浮者, 熱自發 ; 陰弱者, 汗自出. 嗇嗇惡寒, 淅淅惡風, 翕翕發熱, 鼻鳴乾嘔者, 桂枝湯主之.

【解釋】

太陽中風은 陽脈이 浮하고 陰脈이 弱합니다. 陽脈이 浮한 것은 熱이 저절로 나는 것이고, 陰脈이 弱한 것은 땀이 저절로 나는 것입니다. 오싹오싹 惡寒하고 선뜩선뜩 惡風하며 화끈화끈 發熱하고 鼻鳴乾嘔하는 것은 桂枝湯으로 이를 主治합니다.

【註解】

陽以候衛, 陰以候榮. 陽脈浮者, 衛中風也 ; 陰脈弱者, 榮氣弱也. 風幷於衛, 則衛實而榮虛, 故發熱汗自出也. 經曰 "太陽病, 發熱汗出者, 此爲榮弱衛强." 者是也. 嗇嗇者, 不足也, 惡寒之貌也. 淅淅者, 灑淅也, 惡風之貌也. 衛虛則惡風, 榮虛則惡寒, 榮弱衛强, 惡寒復惡風者, 以自汗出, 則皮膚緩, 腠理疏, 是亦惡風也. 翕翕者, 熇熇[(1)]然而熱也, 若合羽所覆, 言熱在表也. 鼻鳴乾嘔者, 風擁而氣逆也. 與桂枝湯和榮衛而散風邪也.

【字義】

(1) 熇熇 : 불꽃이 盛하게 일어나는 모양.

【解釋】

陽으로 衛를 살피고 陰으로 榮을 살핍니다. 陽脈이 浮하다는 것은 衛中風이고, 陰脈이 弱하다는 것은 榮氣가 弱한 것입니다. 風이 衛를 아우르면 衛實하고 榮虛하니, 때문에 發熱하고 땀이 저절로 납니다. 經에 이르길 "太陽病에 發熱하고 汗出하는 것은, 이는 榮이 弱하고 衛가 强한 것입니다."라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嗇嗇은 不足이니, 惡寒하는 모양입니다. 淅淅은 灑淅이니, 惡風하는 모양입니다. 衛가 虛하면 惡風하고 榮이 虛하면 惡寒하는데, 榮이 弱하고 衛가 强하여 惡寒하고 다시 惡風하는 것은 저절로 땀이 나서 皮膚가 느슨하고 腠理가 성겨진 때문이니, 이 역시 惡風입니다. 翕翕은 熇熇然하면서 熱나는 것으로 깃털을 합하여 덮어 놓은 것과 같으니, 熱이 表에 있다고 말합니다. 鼻鳴과 乾嘔는 風이 막아서 氣가 逆한 것입니다. 桂枝湯을 투여하여 榮衛를 조화롭게 하고 風邪를 흩뜨립니다.

【考察】 "陽浮而陰弱"에서 陽脈이 浮한 것은 衛中風으로 風邪가 衛를 침습한 것이므로 衛가 實한 것이고, 陰脈이 弱한 것은 榮氣가 弱한 것이라고 하여 "榮弱衛强"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陽浮而陰弱"에 대한 주석가들의 설명은 일치하지 않은데, "輕取有力, 重按無力"을 뜻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또 "寸浮尺弱"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10].

【處方】

桂枝湯方

桂枝 (三兩, 去皮, 味辛熱) 芍藥 (三兩. 味苦酸, 微寒) 甘草 (二兩, 炙, 味甘平) 生薑 (三兩, 切, 味辛溫) 大棗 (十二枚, 擘, 味甘溫)

【解釋】

계지탕방

계지 (3냥, 껍질은 버린다, 맛은 맵고 氣는 熱하다) 작약 (3냥. 맛은 쓰고 시며 氣는 微寒하다) 감초 (2냥, 굽는다, 맛은 달고 氣는 平하다) 생강 (3냥, 자른다, 맛은 맵고 氣는 溫하다) 대조 (12개, 쪼갠다, 맛은 달고 氣는 溫하다)

【處方-註解】

『內經』曰 "辛甘發散爲陽." 桂枝湯, 辛甘之劑也, 所以發散風邪. 『內經』曰 "風淫所勝, 平以辛, 佐以苦甘, 以甘緩之, 以酸收之[①]." 是以桂枝爲主, 芍藥甘草爲佐也. 『內經』曰 "風淫於內, 以甘緩之, 以辛散之." 是以生薑大棗爲使也.

9) 李培生 主編. 傷寒論.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p.94.

10) 李培生 主編. 傷寒論.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p.26.

【校勘】

① 以酸收之 : 인용된 원문에는 '以酸寫之'로 되어 있다. 뜻은 다르지만 氣를 내린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통한다.

【解釋】

『內經』에 이르길 "辛甘한 것은 發散하여 陽이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桂枝湯은 辛甘한 藥이니, 때문에 風邪를 發散시킵니다. 『內經』에 이르길 "風邪가 넘쳐 勝한 경우에는 辛味로 平하고 苦甘한 味로 돕는데, 甘味로써 緩하게 하고 酸味로써 거둡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桂枝가 主가 되고 芍藥·甘草가 佐가 됩니다. 『內經』에 이르길 "風邪가 안에서 넘치면 甘味로써 緩하게 하고 辛味로써 散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生薑·大棗가 使가 됩니다.

【處方-原文】

右五味, 咬咀. 以水七升, 微火煮取三升, 去滓, 適寒溫, 服一升. 服已須臾, 歠熱稀粥一升餘, 以助藥力, 溫覆令一時許, 遍身漐漐, 微似有汗者益佳, 不可令如水流漓, 病必不除. 若一服汗出病差, 停後服, 不必盡劑 ; 若不汗, 更服, 依前法 ; 又不汗, 後服小促役其間, 半日許, 令三服盡 ; 若病重者, 一日一夜服, 周時觀之. 服一劑盡, 病證猶在者, 更作服 ; 若汗不出者, 乃服至二三劑. 禁生冷, 粘滑, 肉麵, 五辛, 酒酪, 臭惡等物.

【解釋】

위의 5味를 썰어서 물 7되로 微火에 끓여 3되를 取하고 찌꺼기는 버리며 寒溫을 적당히 하여 1되를 服用합니다. 服用을 마치고 잠깐 뒤 뜨거운 묽은 죽 1되 남짓을 마셔 藥力을 돕고 1시각 정도 이불을 따뜻하게 덮어 온 몸에 축축하게 조금 땀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더욱 좋고, 물이 흐르듯이 땀내서는 안되니 病이 반드시 제거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번 服用하여 땀이 나서 病이 나으면 다음 服用은 멈추어 반드시 藥을 다 服用할 필요는 없고, 만약 땀이 나지 않으면 다시 服用하되 앞의 복용법을 따르며, 또 땀이 나지 않으면 다음 服用의 간격을 조금 재촉하도록 하여 半日에 세 번 服用을 다하고, 만약 病이 重하면 一日一夜에 服用하되 시간을 두루 하여 살핍니다. 一劑를 다 服用하였는데 病證이 여전히 있으면 다시 지어 服用시키고, 만약 땀이 나지 않으면 이에 2-3劑에 이르도록 服用시킵니다. 生冷·粘滑·肉麵·五辛·酒酪·臭惡가 나는 음식물을 禁합니다.

【原文 14】

太陽病, 頭痛發熱, 汗出惡風者, 桂枝湯主之.

【解釋】

太陽病에 頭痛·發熱하고 汗出·惡風하는 것은 桂枝湯으로 이를 主治합니다.

【註解】

頭痛者, 太陽也 ; 發熱汗出惡風者, 中風也. 與桂枝湯, 解散風邪.

【解釋】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太陽이고, 發熱·汗出·惡風은 中風입니다. 桂枝湯을 투여하여 風邪를 解散시킵니다.

【原文 15】

太陽病, 項背强几几, 反汗出惡風者, 桂枝加葛根湯主之.

【解釋】

太陽病에 뒷목과 등이 뻣뻣하고 几几하며 도리어 땀이 나고 惡風하는 것은 桂枝加葛根湯으로 이를 主治합니다.

【註解】

几几者, 伸頸之貌也. 動則伸頸, 搖身而行. 項背强者, 動則如之. 項背几几者, 當無汗, 反汗出惡風者, 中風表虛也, 與桂枝湯以和表, 加麻黃葛根以祛風, 且麻黃主表實, 後葛根湯證云 "太陽病, 項背强几几, 無汗惡風, 葛根湯主之." 藥味正與此方同. 其無汗者, 當用麻黃, 今自汗出[1], 恐不加麻黃, 但加葛根也.

【校勘】

① 今自汗出 : 『四庫全書』本에는 '今曰汗出'로 되어 있다. 原文에 '自汗出'이라는 말은 없고 또 문맥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四庫全書』本을 따라 해석하였다.

【解釋】

几几는 앞 목을 길게 빼는 모양입니다. 움직이면 앞목을 길게 빼고 몸을 흔들며 갑니다. 뒷목과 등이

뻣뻣한 것은 움직일 때 이와 같습니다. 뒷목과 등이 几几하면 마땅히 無汗한데 도리어 땀이 나며 惡風하는 것은 中風表虛이니, 桂枝湯을 투여하여 表를 조화롭게 하고 麻黃과 葛根을 加하여 風을 제거하는데, 다만 麻黃은 表實을 主하니, 뒤의 葛根湯證에 이르길 "太陽病에 목덜미와 등이 뻣뻣하고 几几하며 無汗하고 惡風하는 것은 葛根湯으로 이를 主治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藥味가 바로 이 處方과 더불어 같습니다. 無汗하면 마땅히 麻黃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지금 땀이 난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麻黃을 加하지 않고 다만 葛根만 加한성 싶습니다.

【考察】"項背强几几"는 葛根湯證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無汗, 惡寒"의 증상을 兼하게 된다. 그러나 본 조문에서는 "項背强几几"의 증상이 나타났는데 "汗出"의 증상이 있으니, 成無己는 본 조문의 증상을 中風表虛로 인식하면서 桂枝湯證이라고 보았다. 다만, "項背强几几"의 증상이 있으므로 麻黃과 葛根을 加하여 祛風시켜야 하지만, 麻黃은 表實證을 치료하는 약물이므로 葛根만 加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版本에 따라서는 桂枝加葛根湯에 麻黃이 포함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成無己의 주장을 근거로 할 때 麻黃을 빼는 것이 합당하다[11].

【原文 16】

太陽病, 下之後, 其氣上衝者, 可與桂枝湯. 方用前法. 若不上衝者, 不可與之.

【解釋】

太陽病에 下시킨 후 그 氣가 上衝하면 桂枝湯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處方은 前法을 사용합니다. 만약 上衝하지 않으면 투여하지 못합니다.

【註解】

太陽病屬表, 而反下之, 則虛其裏, 邪欲乘虛傳裏. 若氣上衝者, 裏不受邪, 而氣逆上, 與邪爭也, 則邪仍在表, 故當復與桂枝湯解外 ; 其氣不上衝者, 裏虛不能與邪爭, 邪氣已傳裏也, 故不可更與桂枝湯攻表.

【解釋】

太陽病은 表에 속하는데 반대로 下시키면 그 裏가 虛해져 邪氣가 虛를 타고 裏로 傳하고자 합니다. 만약 氣가 上衝하는 것은 裏가 邪를 받지 않고 氣가 逆上하여 邪와 더불어 다투는 것이니, 邪氣가 여전히 表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다시 桂枝湯을 투여하여 밖을 풀고, 그 氣가 上衝하지 않으면 裏가 虛하여 邪氣와 더불어 다툴 수 없고 邪氣가 이미 裏로 傳한 것이니, 때문에 다시 桂枝湯을 투여하여 表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考察】太陽病에 下法의 誤治를 한 경우 氣가 上衝하는 것은 邪氣가 여전히 標에 있으므로 桂枝湯을 투여하여 解外시킬 수 있다. 이에 비해 氣가 上衝하지 않는 것은 邪氣가 이미 裏部로 傳해진 것으로 桂枝湯을 투여할 수 없다.

이 조문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誤治를 하기 전의 太陽病이 무슨 湯證이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下法이라는 誤治를 할 정도였다면 裏熱證과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니, 원래 桂枝湯證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誤治를 하여 正氣가 耗損되었으므로 表證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峻烈한 發汗法은 적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원래의 病證이 무엇이었는가에 관계없이 緩慢한 發汗劑인 桂枝湯을 투여하여 表證을 치료하는 것이다[12].

【原文 17】

太陽病三日, 已發汗, 若吐, 若下, 若溫針, 仍不解者, 此爲壞病, 桂枝不中與也. 觀其脈證, 知犯何逆, 隨證治之.

【解釋】

太陽病 3日에 이미 發汗과 그 밖에 또 吐·下·溫針을 사용하였으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은, 이는 壞病이니 桂枝湯을 투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 脈證을 관찰하여 어떤 逆治를 犯했는지를 알아서 證에 따라 이를 治療합니다.

【註解】

太陽病, 三日中, 曾經發汗, 吐下, 溫針, 虛其正氣, 病仍不解者, 謂之壞病, 言爲醫所壞病也. 不可復與桂

11) 李培生 上編. 傷寒論.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p.44.

12) 李培生 上編. 傷寒論.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p.37.

枝湯. 審觀脈證, 知犯何逆, 而治之逆者, 隨所逆而救之.

【解釋】

太陽病 3日에 發汗·吐·下·溫針의 치료를 받아 그 正氣가 虛해져서 病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을 壞病이라 하니, 말하자면 의사가 만든 壞病입니다. 다시 桂枝湯을 투여하지 못합니다. 脈證을 살피고 관찰하여 어떤 逆治를 犯했는지를 알아서 그 逆治를 치료한다는 것은 逆治한 바를 따라 그것을 救하는 것입니다.

【考察】壞病에 대해 成無己는 의사가 만든 병이라고 하면서, 어떤 逆治를 犯했는지를 먼저 살핀 후 逆治한 바를 따라서 구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李培生은 體質的인 문제 또는 약물의 服用是 지켜야 할 금기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한 번에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즉, 病證에 적합한 처방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體質的인 문제 등으로 인해 바로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대부분의 의가는 이러한 경우 처방의 구성을 의심하여, 병증과는 무관한 처방을 재차 투여하여 誤治를 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13].

【原文 18】

桂枝本爲解肌, 若其人脈浮緊, 發熱汗不出者, 不可與也. 常須識此, 勿令誤也.

【解釋】

桂枝湯은 본래 解肌시키는 것이니, 만약 그 사람의 脈이 浮緊하고 發熱하며 땀이 나지 않으면 투여하지 못합니다. 항상 모름지기 이를 알아 망령되이 誤治하여서는 안됩니다.

【註解】

脈浮, 發熱, 汗出惡風者, 中風也, 可與桂枝湯解肌 ; 脈浮緊, 發熱, 不汗出者, 傷寒也, 可與麻黃湯. 常須識此, 勿妄治也.

【解釋】

脈이 浮하고 發熱하며 汗出·惡風하는 것은 中風이니 桂枝湯을 투여하여 解肌시키는 것이 옳고, 脈이 浮緊하고 發熱하며 땀이 나지 않는 것은 傷寒이니 麻黃湯을 투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항상 모름지기 이를 알아 망령되이 치료하지 말아야 합니다.

【原文 19】

若酒客病, 不可與桂枝湯, 得湯則嘔, 以酒客不喜甘故也.

【解釋】

가령 酒客의 病에는 桂枝湯을 투여하지 못하니, 이를 복용하면 嘔하는데 酒客은 甘味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註解】

酒客內熱, 喜辛而惡甘, 桂枝湯甘, 酒客得之, 則中滿而嘔.

【解釋】

酒客은 內熱이 있어 辛味를 좋아하고 甘味를 싫어하는데, 桂枝湯은 甘하니 酒客이 복용하면 속이 그득하면서 嘔합니다.

【考察】成無己는 酒客은 內熱이 있는 病證이므로 治法에 甘味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桂枝湯을 투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후대의 의가들은 酒客에 대해 濕熱이 쌓인 것으로 病機의 범위를 확대시켰고, 桂枝湯을 투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甘味뿐만 아니라 桂枝湯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유로 제시하였다[14]. 술을 마시게 되면 頭痛, 發熱, 汗出 등 桂枝湯證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은 外部 邪氣의 침습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飮酒로 인해 體內에 濕熱이 積滯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溫性의 藥을 투여하면 體內에 積滯된 濕熱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 또한 甘味는 土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濕이 積滯된 경우에 甘味를 사용하게 되면 濕을 더욱 凝滯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嘔吐를 유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조문에서 酒客에 桂枝湯 투여를 금지시킨 것은 濕熱의 조장과 凝滯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3) 李培生 上編. 傷寒論.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p.90.

14) 李培生 上編. 傷寒論.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p.41.

【原文 20】

喘家作桂枝湯, 加厚朴杏子佳①.

【校勘】

① 加厚朴杏子佳 : 『四庫全書』本에는 '加厚朴杏子仁'으로 되어있다.

【解釋】

喘家에는 桂枝湯을 作하되 厚朴杏仁을 加하면 좋습니다.

【註解】

太陽病, 爲諸陽主氣, 風甚氣擁, 則生喘也. 與桂枝湯以散風, 加厚朴, 杏仁以降氣.

【解釋】

太陽病에서 太陽은 諸陽을 위하여 氣를 主하는데, 風이 甚하여 氣가 막히면 喘이 생깁니다. 桂枝湯을 투여하여 風을 흩뜨리고 厚朴杏仁을 加하여 氣를 내립니다.

【考察】喘症이 발생하는 病機에 대해 成無己는 風이 甚하여 氣가 막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喘症이 발생하는 病機에 대해 厚朴과 杏仁을 사용한 것을 통해 살펴보면, 風寒이 肺를 속박하여 宣發과 肅降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15]. 한편, 또 하나 언급해야 할 것은 喘症은 주로 麻黃湯證에 나타나는 증상인데, 본 조문에서는 桂枝湯을 주된 치법으로 하면서 厚朴과 杏仁을 加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조문의 증상은 桂枝湯의 증상들이 있는 상태에서 喘症이 兼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原文 21】

凡服桂枝湯吐者, 其後必吐膿血也.

【解釋】

무릇 桂枝湯을 복용하고 吐하는 사람은 그 후에 반드시 膿血을 吐합니다.

【註解】

內熱者, 服桂枝湯則吐, 如酒客之類也. 旣亡津液, 又爲熱所搏, 其後必吐膿血. 吐膿血, 謂之肺痿. 『金匱要略』曰 "熱在上焦爲肺痿. 謂或從汗或從嘔吐, 重亡津液, 故得之."

【解釋】

안에 熱이 있는 사람이 桂枝湯을 복용하면 吐하니, 마치 酒客의 類와 같습니다. 이미 津液을 잃고 또 熱의 치는 바를 당하니, 그 후에 반드시 膿血을 吐합니다. 膿血을 吐하는 것을 肺痿라고 합니다. 『金匱要略』에 이르길 "熱이 上焦에 있으면 肺痿가 됩니다. 師가 말하길 혹은 땀을 따라 혹은 嘔吐를 따라 거듭 津液을 잃기 때문에 肺痿가 생깁니다."라고 하였습니다.

【考察】成無己는 內熱이 있는 상태에서 桂枝湯을 복용하면 膿血을 吐하는 증상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이 증상을 肺痿라고 규정짓고 있다. 한편, 嘔吐와 膿血을 吐하는 것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의가도 있으니 다음과 같다. 內熱이 있는 상태에서 辛溫한 桂枝湯을 복용하면 熱이 盛해짐으로 인해 胃가 逆하여 嘔吐가 발생하고, 또 盛한 熱이 血絡을 傷하면 膿血을 吐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16].

【原文 22】

太陽病, 發汗, 遂漏不止, 其人惡風, 小便難, 四肢微急, 難以屈伸者, 桂枝加附子湯主之.

【解釋】

太陽病에 發汗하여 마침내 새는 것이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惡風하고 小便難하며 四肢가 조금 당기고 屈伸하기 어려운 것은 桂枝加附子湯으로 이를 主治합니다.

【註解】

太陽病, 因發汗, 遂汗漏不止而惡風者, 爲陽氣不足, 因發汗, 陽氣益虛而皮腠不固也. 『內經』曰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出." 小便難者, 汗出亡津液, 陽氣虛弱, 不能施化. 四肢者, 諸陽之本也. 四肢微急, 難以屈伸者, 亡陽而脫液也. 『鍼經』曰 "液脫者, 骨屬屈伸不利." 與桂枝加附子湯, 以溫經復陽.

【解釋】

太陽病에 發汗으로 인하여 마침내 汗漏가 그치지 않고 惡風하는 것은 陽氣不足이 되니, 發汗으로 인하여 陽氣가 더욱 虛해져 皮腠가 固密하지 못하게 된

15) 李培生 主編. 傷寒論.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p.45.

16) 李培生 主編. 傷寒論.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p.42.

것입니다. 『內經』에 이르길 "膀胱은 州都의 官으로 津液을 저장하였다가 氣化가 되면 내보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小便이 困難한 것은 땀이 나 津液을 잃고 陽氣가 虛弱해져 施化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四肢는 諸陽의 本입니다. 四肢가 조금 당기고 屈伸이 어려운 것은 陽을 잃고 液이 빠진 것입니다. 『鍼經』에 이르길 "液이 빠지면 관절의 屈伸이 부드럽지 못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桂枝加附子湯을 투여하여 經을 따뜻하게 하고 陽을 회복시킵니다.

【考察】 成無己는 "遂漏不止, 其人惡風"의 증상에 대해서 發汗法의 誤治에 의해 陽氣가 부족해져 피부와 주리가 不固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小便難"에 대해서는 汗出로 진액이 없어지고 陽氣가 허약해져, 陽氣의 施化기능이 발휘되지 못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四肢微急, 難以屈伸"에 대해서는 사지가 모든 陽의 근본이라는 인식아래 汗出로 인한 亡陽의 상태와 津液脫의 상태가 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후대의 의가들은 대부분 성무기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本證의 病機를 亡陽과 津液耗損으로 볼 경우, 病機와 治方으로 적용된 桂枝加附子湯의 사이에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附子는 溫裏藥에 속하여 固陽補火·散寒除濕하는 효능이 있어 亡陽證에는 적용할 수 있지만 津液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적합한 약이고, 또한 除濕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過用할 경우 燥證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遂漏不止"에 의해 津液이 모손된다는 病機 분석은 것은 附子가 들어간 처방과 부합되지 않는다. 이에 遂漏不止의 상태를 多量의 汗出로 보기는 힘들고, 다만 땀이 계속해서 나는 현상을 표현한 것으로 그 양은 少量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小便難, 四肢微急, 難以屈伸"의 증상을 仲景이 附子를 加한 것을 통해 그 病機를 유추해 본다면 반드시 津液不足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즉 小量이지만 땀이 계속해서 배출됨으로 인해 陽氣에 손상을 미치게 되고, 또한 많은 注家들이 지적하였듯이 誤治한 이후 재차 風寒邪의 침습을 받아 陽氣가 거듭 손상된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陽의 기능이 떨어져 行水의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여 전신으로 津液이 운행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陰液이 人體 내에서 운행되지 못하여 발생한 증상들이므로 "走而不守"한 성질을 이용하여 津液을 전신으로 퍼뜨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附子를 加味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桂枝加附子湯은 津液 耗損이 심한 證에는 쓸 수 없는 처방으로, 본 조문에 나타난 증상들은 陰液이 운행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附子를 加하여 陰液이 전신으로 퍼져 운행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여전히 桂枝湯證이 남아 있고, 특히 "遂漏不止"라 하여 桂枝湯의 自汗證과는 차이를 보이므로, 附子의 表揚을 도와주는 기능을 통해 조절하고자 한 것이다[17].

【原文 23】

太陽病, 下之後, 脈促胸滿者, 桂枝去芍藥湯主之. 若微惡寒者, 去芍藥方中, 加附子湯主之.

【解釋】

太陽病을 下한 후에 脈이 促하고 胸滿한 者는 桂枝去芍藥湯으로 이를 主治합니다. 만약 약간 惡寒하면 芍藥을 제거한 方中에 附子를 加한 湯으로 이를 主治합니다.

【註解】

脈來數, 時一止復來者, 名曰促. 促爲陽盛, 則不因下後而脈促者也. 此下後脈促, 不得爲陽盛也. 太陽病下之, 其脈促不結胸者, 此爲欲解. 此下後脈促而復胸滿, 則不得爲欲解, 由下後陽虛, 表邪漸入而客於胸中也. 與桂枝湯以散客邪, 通行陽氣, 芍藥益陰, 陽虛者非所宜, 故去之. 陽氣已虛, 若更加之微惡寒, 則必當溫劑以散之, 故加附子.

【解釋】

脈의 오는 것이 빠르고 때로 한번 멈추었다 다시 오는 것을 일러 말하길 促이라 합니다. 促은 陽盛이니, 下法을 因하지 않았는데 脈이 促한 것입니다. 이 조문은 下한 후에 脈이 促하니 陽盛이 되지 못합니다. 太陽病을 下하여 그 脈이 促하고 結胸이 생기지

17) 방정균. 桂枝加附子湯證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2). pp.58-59.

않는 것은, 이는 풀리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下한 후에 脈이 促하고 다시 胸滿한 것은 풀리려는 것이 아니고 下한 후에 陽虛로 말미암아 表邪가 점차 들어가 胸中에 머무른 것입니다. 桂枝湯을 투여하여 客邪를 흩뜨리고 陽氣를 通行시키되, 芍藥은 陰을 증가시켜 陽虛한 者에게 마땅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합니다. 陽氣가 이미 虛한데 만약 다시 조금 惡寒한 증상이 더해지면 반드시 마땅히 따뜻한 藥으로 이를 흩뜨려야 되기 때문에 附子를 加합니다.

【考察】 成無已는 먼저 促脈의 의미를 구분하였다. 즉, 下法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促脈이 나타나는 것은 陽이 盛한 상태이고, 본 조문과 같이 下法을 사용한 후 促脈이 나타나는 것은 陽盛이 아니라고 구분하고 있다. 또한, 下法의 誤治로 인해 促脈이 나타난 상태에서 結胸의 有無로 病의 상태를 구분하고 있다. 즉, 結胸이 생기지 않으면 病이 풀리려는 것이고, 胸滿의 증상이 생긴 것은 陽虛로 말미암아 表邪가 胸部에 머물러 胸中의 陽氣가 퍼지지 못하는 것을 원인으로 보았다. 그 결과 桂枝湯에서 陰을 증가시키는 芍藥을 제거한 처방을 투여하였으니, 桂枝湯의 효능을 通陽의 의미로 본 것이다. 한편, 위의 증상에 惡寒한 증상이 더해지면 陽이 더욱 虛한 상태이므로 附子를 加하여 溫陽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原文 24】

太陽病, 得之八九日, 如瘧狀, 發熱惡寒, 熱多寒少, 其人不嘔, 清便欲自可, 一日二三度發, 脈微緩者, 爲欲愈也. 脈微而惡寒者, 此陰陽俱虛, 不可更發汗, 更下, 更吐也. 面色反有熱色者, 未欲解也, 以其不能得小汗出, 身必癢, 宜桂枝麻黃各半湯.

【解釋】

太陽病을 얻은 지 8~9日에 瘧疾의 證狀과 같이 發熱惡寒하되 熱多寒少하고 그 사람이 嘔하지 않으며 화장실에서 便을 스스로 조절하고자 하고 1日에 2~3회 發作하며 脈이 微緩한 것은 나으려는 것입니다. 脈이 微하고 惡寒하는 것은, 이는 陰陽이 모두 虛하여 다시 發汗·下·吐를 할 수 없습니다. 面色이 도리어 熱色을 띄는 것은 아직 풀리려는 것이 아니요, 조금도 땀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몸이 반드시 가려울 것이니 桂枝麻黃各半湯이 마땅합니다.

【註解】

傷寒八九日, 則邪傳再經又遍, 三陽欲傳三陰之時也. 傳經次第, 則三日傳遍三陽①, 至四日陽去入陰, 不入陰者爲欲解, 其傳陰經, 第六日傳遍三陰, 爲傳經盡而當解. 其不解傳爲再經者, 至九日又遍三陽, 陽不傳陰則解. 如瘧, 發作有時也. 寒多者爲病進, 熱多者爲病退. 經曰 "厥少熱多, 其病爲愈." "寒多熱少, 陽氣退故爲進也." 今雖發熱惡寒, 而熱多寒少, 爲陽氣進, 而邪氣少也. 裏不和者, 嘔而利, 今不嘔, 清便自調者裏和也. 寒熱間日發者, 邪氣深也 ; 日一發者, 邪氣復常也 ; 日再發者, 邪氣淺也 ; 日二三發者, 邪氣微也. 『內經』曰 "大則邪至, 小則平." 言邪甚則脈大, 邪少則脈微, 今日數多而脈微緩者, 是邪氣微緩也, 故云欲愈. 脈微而惡寒者, 表裏俱虛也. 陽表也, 陰裏也. 脈微爲裏虛, 惡寒爲表虛, 以表裏俱虛, 故不可更發汗, 更下, 更吐也. 陰陽俱虛, 則面色青白, 反有熱色者, 表未解也. 熱色爲赤色也. 得小汗則和. 不得汗, 則得邪氣外散皮膚而爲癢也, 與桂枝麻黃各半湯, 小發其汗, 以除表邪.

【校勘】

① 則三日傳遍三陽 : 『四庫全書』本에는 '前三日傳遍三陽'으로 되어있다. 여기서는 『四庫全書』本을 따라 해석하였다.

【解釋】

傷寒 8~9日이면 邪가 재차 經에 傳해지고 또 두루 미쳐 三陽에서 三陰으로 傳해지려는 때입니다. 傳經의 차례는, 앞의 3日동안에 三陽을 두루 傳하고 4日에 이르러 陽을 떠나 陰에 들어가는데 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풀리려는 것이 되고, 그 陰經에 傳해진 것은 6日에 三陰을 두루 傳하여 傳經이 다하게 되면 마땅히 풀립니다. 그 풀리지 않고 재차 傳經하는 것은, 9日에 이르러 또 三陽에 두루 傳해진 뒤 陽에서 陰으로 傳해지지 않으면 풀립니다. 瘧疾은 發作에 때가 있는 것입니다. 寒이 많은 것은 病이 진행되는 것이 되고, 熱이 많은 것은 病이 물러나는 것이 됩니다. 經에 이르길 "厥이 적고 熱이 많으면 그 病이 낫게 됩니다."라고 하였고, "寒이 많고 熱이 적으면 陽氣가

물러나기 때문에 病이 진행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비록 發熱·惡寒하나 熱이 많고 寒이 적으니 陽氣는 많아지고 邪氣는 적어지게 됩니다. 裏가 조화롭지 못하면 嘔하면서 利하는데, 지금 嘔하지 않고 화장실에서 便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裏가 조화롭다는 것입니다. 寒熱이 하루를 걸러 發作하는 것은 邪氣가 深한 것이고, 하루에 한 번 發作하는 것은 邪氣가 평상을 회복한 것이며, 하루에 再發하는 것은 邪氣가 淺한 것이고, 하루에 2-3회 發作하는 것은 邪氣가 微弱한 것입니다. 『內經』에 이르길 "大하면 邪가 이르고, 小하면 平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邪가 甚하면 脈이 大하고 邪가 少하면 脈이 微한데, 지금 하루에 횟수가 많으면서 脈이 微緩한 것은 이는 邪氣가 微緩한 것이기 때문에 나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脈이 微하면서 惡寒하는 것은 表裏가 모두 虛한 것입니다. 陽은 表이고, 陰은 裏입니다. 脈이 微한 것은 裏虛가 되고 惡寒은 表虛가 되니, 表裏가 모두 虛하기 때문에 다시 發汗·下·吐시키지 못합니다. 陰과 陽이 모두 虛하면 面色이 창백한데, 도리어 熱色이 있는 것은 表가 아직 풀리지 않은 것입니다. 熱色은 赤色이 되니 땀을 조금 내면 조화롭게 됩니다. 땀을 내지 못하면 邪氣가 밖으로 皮膚에 흩어져 가렵게 되니, 桂枝麻黃各半湯을 투여하여 땀을 조금 내어 表邪를 제거합니다.

【考察】 본 조문은 太陽病이 8-9일 정도 지속된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瘧疾의 病狀을 가지고 있지만 脈이 微緩한 것은 病이 治癒되는 징조이고, 둘째는 脈이 微하면서 惡寒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陰陽이 모두 虛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面色이 熱色을 띄면서 몸에 가려운 증상이 발생하는 것은 邪氣가 表에 鬱滯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桂枝麻黃各半湯으로 조금 發汗시킴으로써 치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原文 25】

太陽病, 初服桂枝湯, 反煩不解者, 先刺風池, 風府, 却與桂枝湯則愈.

【解釋】

太陽病에 처음 桂枝湯을 服用하였는데 도리어 煩하고 풀리니 않는 者는 먼저 風池·風府를 刺針하고 바로 桂枝湯을 투여하면 낫습니다.

【註解】

煩者, 熱也. 服桂枝湯後, 當汗出而身涼和 ; 若反煩不解者, 風甚而未能散也. 先刺風池, 風府, 以通太陽之經, 而泄風氣, 却與桂枝湯解散則愈.

【解釋】

煩은 熱입니다. 桂枝湯을 服用한 후에 마땅히 땀이 나면서 몸에 熱이 없어져 조화롭게 되어야 하는데, 만약 도리어 煩하고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風이 甚하여 아직 흩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風池·風府를 刺針하여 太陽의 經을 소통시켜 風氣를 泄하고 바로 桂枝湯을 투여하여 解散시키면 낫습니다.

【原文 26】

服桂枝湯, 大汗出, 脈洪大者, 與桂枝湯如前法 ; 若形如瘧, 日再發者, 汗出必解, 宜桂枝二麻黃一湯.

【解釋】

桂枝湯을 복용하여 크게 땀을 내었는데 脈이 洪大한 것은 桂枝湯을 투여하되 前法과 같이 하고, 만약 形狀이 瘧疾과 같아 하루에 再發하는 것은 땀을 내면 반드시 풀리니 桂枝二麻黃一湯이 마땅합니다.

【註解】

經曰 "如服一劑, 病證猶在者, 故當復作本湯服之." 服桂枝湯汗出後, 脈洪大者, 病猶在也 ; 若形如瘧, 日再發者, 邪氣客於榮衛之間也. 與桂枝二麻黃一湯, 解散榮衛之邪.

【解釋】

經에 이르길 "만약 一劑를 복용했는데 病證이 여전히 있으므로 마땅히 다시 桂枝湯을 지어 복용시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桂枝湯을 복용하여 땀을 낸 후에 脈이 洪大한 것은 病이 아직 존재하는 것이고, 만약 形狀이 瘧疾과 같아 하루에 再發하는 것은 邪氣가 榮衛의 사이에 머무른 것입니다. 桂枝二麻黃一湯을 투여하여 榮衛의 사이에 머무른 邪를 解散시킵니다.

【原文 27】

服桂枝湯, 大汗出後, 大煩, 渴不解, 脈洪大者, 白虎加人參湯主之.

【解釋】

桂枝湯을 복용하여 크게 땀을 낸 후에 大煩하고 갈증이 풀리지 않으며 脈이 洪大한 것은 白虎加人參湯이 이를 主治합니다.

【註解】

大汗出, 脈洪大而不渴, 邪氣猶在表也, 可更與桂枝湯. 若大汗出, 脈洪大, 而煩渴不解者, 表裏有熱, 不可更與桂枝湯. 可與白虎加人參湯, 生津止渴, 和表散熱.

【解釋】

크게 땀을 냈는데 脈이 洪大하며 갈증 나지 않는 것은 邪氣가 아직 表에 있는 것이니, 다시 桂枝湯을 투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크게 땀을 냈는데 脈이 洪大하며 煩渴이 풀리지 않는 것은 表裏에 熱이 있어 다시 桂枝湯을 투여할 수 없습니다. 白虎加人參湯을 투여하는 것이 옳으니, 白虎加人蔘湯은 生津止渴하고 和表散熱합니다.

【考察】 桂枝湯을 복용할 경우 땀을 조금 내어야 하는데 본 조문과 같이 크게 땀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成無己는 땀을 크게 내었을 경우 나타나는 병증을 2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니 다음과 같다. 洪大한 脈象이 나타나고 渴症이 나지 않는 것은 邪氣가 여전히 表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차 桂枝湯을 투여하여 表邪를 풀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脈이 洪大하고 煩渴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白虎加人蔘湯을 투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原文 28】

太陽病, 發熱惡寒, 熱多寒少, 脈微弱者, 此無陽也, 不可更汗①, 宜桂枝二越婢一湯方.

【校勘】

① 不可更汗 : 『四庫全書』本에는 '不可發汗'으로 되어있다. 문맥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四庫全書』本을 따라 해석하였다.

【解釋】

太陽病에 發熱惡寒하되 熱多寒少하며 脈이 微弱한 경우는 陽이 없는 것이니 땀을 내는 것이 不可하고, 桂枝二越婢一湯이 마땅합니다.

【處方】

桂枝二越婢一湯方

桂枝 (去皮) 芍藥 甘草 (各十八銖) 生薑 (一兩三錢, 切①) 大棗 (四枚, 擘) 麻黃 (十八銖, 去節) 石膏 (二十四銖, 碎, 綿裹)

【校勘】

① 切 : 『四庫全書』本에는 '切'字가 없다.

【解釋】

계지이월비일탕방

계지 (껍질을 버린다) 작약 감초 (각각 3/4냥) 생강 (1냥3돈, 자른다) 대조 (4개, 쪼갠다) 마황 3/4냥, 마디를 버린다) 석고 (1냥, 부수어 면으로 싼다)

【處方-註解】

胃爲十二經之主, 脾治水穀爲卑臟若婢. 『內經』曰 "脾主爲胃行其津液." 是湯所以謂之越婢者, 以發越脾氣, 通行津液. 外臺方, 一名越脾湯, 卽此義也.

【解釋】

胃는 十二經의 主가 되고, 脾는 水穀을 다스려 계집종과 같이 낮은 臟이 됩니다[18]. 『內經』에 이르길 "脾는 胃를 위하여 津液을 움직이는 것을 主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湯에서 이른바 越婢라는 것은 脾氣를 發越시켜 津液을 通行시키는 것입니다. 外臺方의 一名 越脾湯이 곧 이 뜻입니다.

【處方-原文】

右七味, 咬咀. 以五升水, 煮麻黃一二沸, 去上沫, 內諸藥, 煮取二升, 去滓, 溫服一升. 本方當裁爲越婢湯, 桂枝湯, 合飮一升, 今合爲一方, 桂枝二越婢一.

【解釋】

위의 7味를 썹니다. 물 5되로 麻黃을 물이 한두 번 용솟음치도록 끓여서 위의 거품을 제거하고 나머지 藥을 넣어 2되를 取하도록 끓여 찌꺼기는 버리고 따뜻하게 1되를 복용합니다. 本方은 마땅히 越婢湯·

18) 脾가 胃를 위하여 胃가 腐熟시킨 水穀之味를 全身으로 運化시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桂枝湯을 마름질하여 合하여 1되를 마시는데, 지금 合하여 一方으로 하였으니 桂枝二越婢一湯입니다.

【原文 29】

服桂枝湯, 或下之, 仍頭項强痛, 翕翕發熱, 無汗, 心下滿, 微痛, 小便不利者, 桂枝湯去桂, 加茯苓白朮湯主之.

【解釋】

桂枝湯을 복용하고 혹은 下시켰는데 아직 머리와 뒷목이 뻣뻣하고 아프며 화끈화끈 發熱하고 無汗하며 心下가 그득하고 약간 아프며 小便이 不利한 者는 桂枝湯에서 桂枝를 빼고 茯苓·白朮을 加한 湯으로 이를 主治합니다.

【註解】

頭項强痛, 翕翕發熱, 雖經汗下, 爲邪氣仍在表也. 心下滿, 微痛, 小便利者, 則欲成結胸. 今外證未罷, 無汗, 小便不利, 則心下滿, 微痛, 爲停飮也. 與桂枝湯以解外, 加茯苓白朮利小便行留飮.

【解釋】

머리와 뒷목이 뻣뻣하고 아프며 화끈화끈 發熱하는 것은 비록 汗·下를 하였지만 邪氣가 아직 表에 있는 것입니다. 心下가 그득하고 약간 아프며 小便이 利로운 것은 結胸이 생기려는 것입니다. 지금 外證이 없어지지 않고 無汗하며 小便이 不利하고 心下가 그득하고 약간 아픈 것은 停飮이 됩니다. 桂枝湯을 투여하여 밖을 풀고 茯苓·白朮을 加하여 小便을 통하게 하여 留飮을 흐르게 합니다.

【考察】成無己는 본 조문의 증상을 表證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停飮이 兼한 것으로 보았다. 그 결과 桂枝湯으로 表를 풀어주고, 茯苓과 白朮을 加하여 留飮을 흐르게 하는 것을 치법으로 이해하였다.

【原文 30】

傷寒脈浮, 自汗出, 小便數, 心煩, 微惡寒, 脚攣急, 反與桂枝湯, 欲攻其表, 此誤也. 得之便厥, 咽中乾, 煩燥, 吐逆者, 作甘草乾薑湯與之, 以復其陽. 若厥愈, 足溫者, 更作芍藥甘草湯與之, 其脚卽伸. 若胃氣不和, 讝語者, 少與調胃承氣湯. 若重發汗, 復加燒針者, 四逆湯主之.

【解釋】

傷寒에 脈이 浮하고 自汗이 나며 小便이 數하고 心煩하며 약간 惡寒하고 다리가 攣急한데 도리어 桂枝湯을 투여하여 그 表를 공격하고자 하면, 이는 잘못입니다. 桂枝湯을 복용하여 바로 厥하고 咽中이 마르며 煩燥하고 吐逆하는 者는 甘草乾薑湯을 지어 투여하여 그 陽을 회복시킵니다. 만약 厥이 나아 발이 따뜻한 者는 다시 芍藥甘草湯을 지어 투여하면 그 다리가 곧 펴집니다. 만약 胃氣가 조화롭지 못하여 讝語하는 者는 調胃承氣湯을 조금 투여합니다. 만약 거듭 發汗하고 다시 燒針을 加한 者는 四逆湯으로 이를 主治합니다.

【註解】

脈浮, 自汗出, 小便數而惡寒者, 陽氣不足也. 心煩, 脚攣急者, 陰氣不足也. 陰陽血氣俱虛, 則不可發汗, 若與桂枝湯攻表, 則又損陽氣, 故爲誤也. 得之便厥, 咽中乾, 煩燥吐逆者, 先作甘草乾薑湯, 復其陽氣, 得厥愈足溫, 乃與芍藥甘草湯, 益其陰血, 則脚脛得伸. 陰陽雖復, 其有胃燥, 讝語, 少與調胃承氣湯微溏, 以和其胃. 重發汗爲亡陽, 加燒針則損陰, 『內經』曰 "榮氣微者, 加燒針則血不流行." 重發汗, 復燒針, 是陰陽之氣大虛, 四逆湯以復陰陽之氣.

【解釋】

脈이 浮하고 自汗이 나며 小便이 數하고 惡寒하는 것은 陽氣가 不足한 것입니다. 心煩·脚攣急은 陰氣가 不足한 것입니다. 陰陽의 血氣가 모두 虛하면 發汗시킬 수 없는데, 만약 桂枝湯을 투여하여 表를 공격하면 또 陽氣를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입니다. 桂枝湯을 복용하여 바로 厥하고 咽中이 마르며 煩燥하고 吐逆하는 者는 먼저 甘草乾薑湯을 지어 그 陽氣를 회복시키고, 厥이 나아 발이 따뜻해지면 이에 芍藥甘草湯을 투여하여 그 陰血을 불려주면 脚脛이 펴집니다. 陰陽이 비록 회복되었으나 그 胃燥·讝語가 있으면 調胃承氣湯을 조금 투여하여 약간 설사시켜 그 胃를 조화롭게 합니다. 거듭 發汗하면 亡陽이 되고 燒針을 加하면 陰을 손상시키게 되는데, 『內經』에 이르길 "榮氣가 微弱한데 燒針을 加하면 血이 流行하

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거듭 땀을 내고 다시 燒針을 加하였으니 이는 陰陽의 氣가 크게 虛해진 것이어서 四逆湯으로 陰陽의 氣를 회복시킵니다.

【考察】 이미 陰陽의 血氣가 모두 虛한 상태에서 桂枝湯으로 誤治를 하게 되면 陽氣가 손상되어 厥冷, 咽中乾, 煩燥, 吐逆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경우에는 甘草乾薑湯을 투여하여 陽氣를 회복시킨다. 陽氣 회복의 징후는 厥冷의 증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살필 수 있으니, 발이 따뜻해지면 陽氣가 회복된 징후이니 다시 陰血을 더해 주는 芍藥甘草湯을 투여한다. 이상의 치법으로 陰陽이 회복되었음에도 胃燥, 譫語의 증상이 남아 있으면 調胃承氣湯으로 약간의 설사를 시키면 胃가 조화롭게 되어 病이 치유된다. 한편, 陰陽이 모두 虛하여 桂枝湯을 쓸 수 없는데 거듭 發汗法을 쓰고, 또 燒針을 加하여 陰陽을 더욱 훼손시킨 경우는 四逆湯으로 陰陽을 회복시켜야 한다.

【處方】

甘草乾薑湯方

甘草 (四兩, 炙, 味甘平)　乾薑 (二兩, 炮, 味辛熱)

【解釋】

감초건강탕방

감초 (4냥, 굽는다, 맛은 달고 氣는 平하다)　건강 (2냥, 싸서 굽는다, 맛은 맵고 氣는 熱하다)

【處方-註解】

『內經』曰 "辛甘發散爲陽." 甘草乾薑相合, 以復陽氣.

【解釋】

『內經』에 이르길 "辛甘한 味는 發散하여 陽이 됩니다."라고 하였으니, 甘草와 乾薑은 相合하여 陽氣를 회복시킵니다.

【處方-原文】

右㕮咀, 以水三升, 煮取一升五合, 去滓, 分溫再服.

【解釋】

위의 藥을 썰어서 물 3되로 1되 5홉을 取하도록 끓여 찌꺼기는 버리고 나누어 따듯하게 두 번 복용합니다.

【處方】

芍藥甘草湯方

白芍藥 (四兩. 味酸①, 微寒)　甘草 (四兩, 炙. 甘平)

【校勘】

① 味酸 : 『四庫全書』本에는 '苦酸'으로 되어있다.

【解釋】

작약감초탕방

백작약 (4냥. 맛은 시고 氣는 微寒하다)　감초 (4냥, 굽는다. 맛은 달고 氣는 平하다)

【處方-註解】

芍藥, 白補而赤瀉, 白收而赤散也. 酸以收之, 甘以緩之, 酸甘相合, 用補陰血.

【解釋】

芍藥의 경우 白芍藥은 補하고 赤芍藥은 瀉하며, 白芍藥은 收斂하고 赤芍藥은 散합니다. 酸味는 收斂하고 甘味는 緩하게 하니 酸味와 甘味가 相合하여 陰血을 補하는 작용을 합니다.

【處方-原文】

右二味㕮咀, 以水三升, 煮取一升半, 去滓, 分溫再服之.

【解釋】

위의 2味를 썰어서 물 3되로 1되 반을 取하도록 끓여 찌꺼기는 버리고 나누어 따뜻하게 두 번 복용합니다.

【處方】

調胃承氣湯方

大黃 (四兩, 去皮, 淸酒浸)　甘草 (二兩, 炙, 味甘平)　芒硝 (半斤①, 味鹹苦, 大寒)

【校勘】

① 半斤 : 『四庫全書』本에는 '半升'으로 되어있다.

【解釋】

조위승기탕방

대황 (4냥, 껍질을 버리고 淸酒에 담근다)　감초 (2냥, 굽는다, 맛은 달고 氣는 平하다)　망초 (8냥, 맛은 짜고 쓰며 氣는 大寒하다)

【處方-註解】

『內經』曰 "熱淫於內, 治以鹹寒, 佐以苦甘." 芒硝鹹寒以除熱, 大黃苦寒以蕩實, 甘草甘平, 助二物, 推陳而緩中.

【解釋】

『內經』에 이르길 "熱이 안에서 넘치면 鹹味와 寒性으로 다스리고 苦甘한 味로 돕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芒硝는 鹹寒하여 熱을 제거하고, 大黃은 苦寒하여 實을 쓸어버리며, 甘草는 甘平하여 2 약물을 도와 묵은 것을 밀어내고 속을 완만하게 합니다.

【處方-原文】

右三味咬咀, 以水三升, 煮取一升, 去滓, 內芒硝更上火微煮, 令沸, 少少溫服.

【解釋】

위의 3味를 썰어서 물 3되로 1되를 取하도록 끓여 찌꺼기는 버리고 芒硝를 넣고 다시 上火로 조금 끓여 부글부글 끓게 하여 조금씩 따뜻하게 복용합니다.

【處方】

四逆湯方

甘草 (二兩, 炙. 味甘平)　乾薑 (一兩半. 味辛熱)　附子 (一枚, 生用, 去皮, 破八片. 辛, 大熱)

【解釋】

사역탕방

감초 (2냥, 굽는다. 맛은 달고 氣는 平하다)　건강 (1과1/2냥. 맛은 맵고 氣는 熱하다)　부자 (1개를 생으로 사용하되 껍질을 버리고 8쪽으로 쪼갠다. 맛은 맵고 氣는 大熱하다)

【處方-註解】『內經』曰 "寒淫於內, 治以甘熱." 又曰 "寒淫所勝, 平以辛熱." 甘草薑附相合, 爲甘辛大熱之劑, 乃可發散陰陽之氣.

【解釋】

『內經』에 이르길 "寒이 안에서 넘치면 甘熱한 氣味로 다스립니다."라고 하였고, 또 이르길 "寒이 넘쳐 勝한 것은 辛熱한 氣味로 平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甘草와 乾薑, 附子가 相合하여 甘辛하고 大熱한 藥이 되니 이에 陰陽의 氣를 發散시킬 수 있습니다.

【處方-原文】

右三味咬咀, 以水三升, 煮取一升二合, 去滓, 分溫再服, 强人可大附子一枚, 乾薑三兩.

【解釋】

위의 3味를 썰어서 물 3되로 1되 2홉을 取하도록 끓여 찌꺼기는 버리고 나누어 따뜻하게 두 번 복용하는데, 健壯한 사람은 大附子 一枚와 乾薑 3냥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原文 31】

問曰證象陽旦, 按法治之而增劇, 厥逆, 咽中乾, 兩脛拘急而讝語. 師曰言夜半手足當溫, 兩脚當伸, 後如師言. 何以知此? 答曰寸口脈浮而大, 浮則爲風, 大則爲虛, 風則生微熱, 虛則兩脛攣. 病證象桂枝, 因加附子參其間, 增桂令汗出, 附子溫經, 亡陽故也. 厥逆咽中乾, 煩燥, 陽明內結, 讝語, 煩亂, 更飮甘草乾薑湯. 夜半陽氣還, 兩足當熱, 脛尙微拘急, 重與芍藥甘草湯, 爾乃脛伸, 以承氣湯微溏, 則止其讝語, 故知病可愈.

【解釋】

물어 말하였습니다. "證이 陽旦과 비슷하여 法을 감안하여 이를 치료하였으나 더욱 심해져 厥逆하고 咽中이 마르며 兩脛이 拘急하고 헛소리를 합니다. 스승님의 말씀에, '한밤중에 手足이 마땅히 따뜻해지고 兩脚도 마땅히 펴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후에 스승님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를 아셨습니까?" 답하여 말하였습니다. "寸口脈이 浮하면서 大하니, 浮는 風이요 大는 虛라, 風이 있으면 微熱이 발생하고 虛하면 兩脛이 攣합니다. 病證이 桂枝湯과 비슷하니, 因하여 附子를 加하고 그 사이를 헤아려 桂枝를 증량하여 땀을 내게 하였는데, 附子의 溫經은 陽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厥逆하고 咽中이 마르며 煩燥하고 陽明이 內結하여 讝語하고 煩亂하여 다시 甘草乾薑湯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한밤중에 陽氣가 돌아와 兩足은 마땅히 熱하나 脛이 아직 약간 拘急하여 거듭 芍藥甘草湯을 투여하였더니 그제야 다리가 펴졌고 承氣湯으로 조금 설사시키니 그 讝語가 그쳤기 때문에 病이 나을 것임을 안 것입니다."

【註解】

陽旦, 桂枝湯別名也. 前證脈浮自汗出①, 小便數, 心煩, 微惡寒, 脚攣急, 與桂枝湯證相似, 是證象陽旦也. 與桂枝湯而增劇, 得寸口脈浮大, 浮爲風邪, 大爲血虛, 卽於桂枝湯加附子, 溫經以補虛, 增桂令汗出以祛風. 其有治之之逆而增厥者, 與甘草乾薑湯, 陽復而足溫, 更與芍藥甘草湯, 陰和而脛伸. 表邪已解, 陰陽已復, 而有陽明內結, 讝語煩亂, 少與調胃承氣湯, 微溏泄以和其胃, 則陰陽之氣皆和, 內外之邪悉去, 故知病可愈.

【校勘】

① 前證脈浮自汗出 : 『四庫全書』本에는 '前證脈微自汗出'로 되어있다.

【解釋】

陽旦은 桂枝湯의 別名입니다. 前證의 脈이 浮하고 自汗이 나며 小便이 數하고 心煩하며 약간 惡寒하고 다리가 攣急한 것은 桂枝湯證과 더불어 서로 비슷하니, 이는 證이 陽旦과 비슷한 것입니다. 桂枝湯을 투여하여 더욱 심해져 寸口脈이 浮大하게 되었는데, 浮는 風邪가 되고 大는 血虛가 되니, 곧 桂枝湯에 附子를 加하여 溫經시켜 補虛하고 桂枝를 증량하여 땀나게 하여 祛風합니다. 그 치료의 거스름이 있어 厥冷의 증상이 더해진 者에게는 甘草乾薑湯을 투여하면 陽이 회복되어 발이 따뜻해지고, 다시 芍藥甘草湯을 투여하면 陰이 조화로워져 다리가 펴집니다. 表邪가 이미 풀리고 陰陽이 이미 회복되었는데 陽明에 內結이 있어 讝語하고 煩亂한 者에게 調胃承氣湯을 조금 투여하여 약간 설사시켜 그 胃를 조화롭게 하면 陰陽의 氣가 모두 조화로워져 內外의 邪가 다 제거되기 때문에 病이 나을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Ⅳ. 結 論

『註解傷寒論』은 成無已에 의해 저술된 서적으로 『傷寒論』全文에 대한 최초의 주석서이다. 『註解傷寒論』은 후대 『傷寒論』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도식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辨太陽病脈證幷治法上第五」는 주로 太陽病의 개념과 桂枝湯證을 위주로 서술되고 있다. 특히, 中風과 傷寒에 대한 내용은 太陽病의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후대의 대부분의 의가들이 이 설명을 따르고 있다. 더 나아가 三綱鼎立說을 주장하는 의가들은 成無已의 주장을 바탕으로 太陽病의 범주를 셋으로 구분하고 있다. 成無已도 中風과 傷寒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桂枝湯證을 風傷衛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參考文獻

<단행본>

1. 成無已 注.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4.
2. 劉渡舟 主編. 傷寒論辭典. 서울. 醫聖堂. 2004.
3. 森立之 著. 傷寒論考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3.
4. 李順保 編著. 傷寒論板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5. 江蘇科學技術出版社 輯. 傷寒論注釋(四庫全書傷寒類醫著集成). 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6. 張仲景 著. 金容沃 解題. 註解傷寒論十卷. 서울. 통나무. 1996.
7. 李培生 主編. 傷寒論.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논문>

1. 방정균. 『傷寒論』의 "中風"과 "傷寒"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4).
2. 방정균. "發於陽"과 "發於陰"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3).
3. 방정균. 桂枝加附子湯證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2).